
「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」 백일장 분야

작품 제목	바보같던 나
-------	--------

작품 본문

며칠 전,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.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열쇠고리를 꺼내었다. 우리는 신기해서 서로 해보겠다고 하였다. 내가 가장 먼저 하는데 딱 생각을 하며 만지다가 열쇠고리가 망가져 버렸다. 나는 놀라 책상 아래서 고치려고 해보았지만 고쳐지지 않았다.

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른 친구에게 주었다. 그 친구는 망가진 것을 보고 열쇠고리가 망가진 것 같다고 얘기했다. 열쇠고리를 가져온 그 친구는 속상해 하였다. 나는 사실을 말하면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할까? 라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해 버렸다. 내가 안 그랬다고. 내가 만질 때부터 그랬다고.

그 친구는 그럼 누가 그런 거냐며 화를 내었다. 사실대로 말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. 난 그러다가 친구와 싸웠다. 내가 안 그런 것처럼 말하였다. "난 정말 아니야. 너가 지금 한 말에 난 상처 받았어." 라고. 그러곤 내 자리로 돌아갔다.

누군가가 알게될까봐 불안했다. 그 때의 작은 마음으로 큰 일이 벌어졌다.

지금은 그 친구와 화해는 했지만 나는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 뭔가가 남아있다. 가끔은 내가 그 때 사실대로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? 라는 생각도 든다.

그 때의 내가 너무 한심하다. 나의 욕심으로 그 친구와 내가 멀어질 뻔 했으니까. 나는 그 때부터 다짐했다. 후회할 짓, 한 마디로 거짓말을 안 하겠다는 것을. 난 앞으로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먹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. 하지만 그 때의 일은 그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를 할 것이다.

너무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바로 다잡기 위해. 난 이제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다. 그 때와 달리.